

■ 특별기고<11>



이 시대에

‘선비와 선비정신’ 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국 북송의 신법당 왕안석은 충신·간신인가?

權 仁 浩(철학박사,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동양철학)

또한 주희는 왕안석의 상소문인 ‘만언서 萬言書’와 비슷한 분량과 구체적 개혁 내용이 비슷하지만 이황은 주자의 ‘무신봉사’와 같은 64조와 비슷한 정문의 ‘무진 육조’를 올리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왕안석과 주자와도 다른 점이 있다. 한편 조식은 ‘무진봉사’에서 내용상으로는 왕안석과 주자의 개혁적 요소가 유사하면서도 형식상으로는 간략하다. 왕안석의 ‘만언서’는 1042년 그가 대관인 진사에 감과(甲科)로 급제 후에 1060년 까지 양주·은현·서주(揚州·縣·舒州) 등지의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유종원(柳宗元)과 유우석(劉禹錫)의 ‘천(天)’에 대한 새로운 학설과 송 초기의 정사치평(政事治平)에 착안한 경제적 학문사상의 인물로 호원(胡援), 손복(孫復), 범중업(范仲淹), 이구(李觀) 등에 영향을 받아 ‘도재정사(道在政事)’의 입장을 지니고 행정과 관계 그리고 재정 등에 능력을 보여 북송 인종 가우(嘉祐) 3년(1058) 이 상소문을 올린다. 이것은 특히 범중업(范仲淹, 989~1052)의 상소문인 십사소(十事疏)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훗날 신법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으며 중국 역대 최고의 명문으로 꼽힌다.

주희의 ‘무진봉사’(1188년)는 조식의 ‘무진봉사’와 이황의 ‘무진육조’(1568년)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나타나는데, 현실을 개혁하여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 임금에 대하여 경으로서 명선성신(明善誠心)을 하여 ‘格君心’ 할 수 있도록 상주한 점은 유사점이다. 그리고 주자와 남명은 정재양민(政在養民)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여 주희는 조세제도나 재상과 지방관 및 대간 등의 인사문제와 환관(宦官)과 병졸(兵卒) 및 장수(將帥)들의 결탁비리, 둔전(屯田)과 조운(漕運) 문제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고, 조식은 관리들의 인사문제, 척리·환관·여할(戚里·宦官·女調)·권신보다도 더 악랄한 ‘서리방국론(胥吏亡國論)’에서 상하가 결탁한 것을 재상에게 따져야 한다는 점, 공물과 방납의 폐해 등의 상소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선조 말년과 광해군의 임진왜란 전후 일련의 복구사업과 대동법 실시, 명과 후금에 대한 등거리 외교 등 구체적인 개혁정책에 남명학파와 환관학파 일부(동인의 후예들이 복인)으로서 대거 참여한 사실은 조식의 상소문에서 보이는 실학적 학문적 경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주자의 학문법위가 매우 광박(廣博)하였고, 또한 모순된 사회정치적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 및 윤리기강의 진작과 풍속의 순회를 주장하였다. 조선조 학문사상에 대한 벽이단(隔壁端)적 ‘사문 난적’ 이란 구호 등이 이황과 송시열 이후 그들의 도통연원에 대한 강한 집착과 견강부회 및 주자학 일존주의(一尊主義)는

사회정치적 부귀의 기득권 유지 및 사상적 보수주의와 함께 앞으로 점검과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이황 중심의 영남학파나 이이 중심의 기호학파와 등의 결탁 내지 여타 학파나 학문사상에 대한 배타적 독존주의 태도는 여전하다. 그리하여 여타 선현(先賢)들과 학파들의 학문사상을 이단시 하거나 백안시하는 학문풍토로서 노사(儒學) 기정 진(奇正鎭, 1798-1879)은 호남 장성사람으로 이이와 다른 학설로 기호학파의 변칙을 받았다. 그리고 한주(寒州)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은 영남 성주 사람으로서 왕양명과는 다른 ‘심즉리(心即理)’를 주장하였는데, 퇴계학파와 성리학적 이론이 다르다하여 영남학파의 배척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의 문집인 ‘노사집’이 송시열의 후손인 송병선에 의해 출판의 어려움을 당하고, 이진상의 ‘한주집’은 도산서원에서 퇴계의 후손에 의해 불살라지는 불상사가 있었음은 19세기 말 조선조가 마감하는 때에도 여전하여 ‘수기치인’의 유학, 곧 시대적 학문사상의 발휘가 제약되고 있었으나 조선조의 망국이란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올바른 학문 지성과 전통문화의 재조명을 위하여 새로운 연구풍토가 이룩될 수 있어야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암암한 이때를 극복하고 미래가 있을 것이다.

가난했던 천재 문장가(당송팔대가)이며 철학자이자 대정치가였던 청렴했던 신법과 왕안석은 똑똑했던 장남의 참작을 다하고, 믿었던 신법과 후배정치인들의 배반과 탐관오리 및 반대파 구법당 사마광 등의 태황태후를 비롯한 황실 외척들이나 대상인(재벌) 대지주들과 결탁한 개혁의 실종과 반동의 정치 속에서 북송은 꼽히에게 멸망하였다.

일찍이 앞선 북송 때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한 남송 때 서산(西山) 진덕수(眞德秀, 1178-1235)는 ‘의관지도(衣冠之盜)’ 관복을 입은 도둑들; 벼슬아치·요즘의 공무원(公務員)가 있는 연후에 간과지구(干戈之寇)·창과 방패를 든 외침하는 오랑캐나 왜구(倭)가 있다!’고 하였다. 임진왜란(1592년) 직전에 붕당정치와 뇌물 사건, 그리고 정여립 모반사건을 무고하여 용렬한 임금과 결탁한 훈척파에 가까운 서인들의 기축옥사(己丑獄事)로 3년에 걸쳐(1589. 10~1591. 10) 앞 시대 사대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1천 여 명의 인물들이 괴화를 입게 하였다.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 1535-1623)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대장에 대한 사직상소를 올리며, 진덕수의 말을 인용하며 당시의 시대상황을 질타를 하였다. 우리의 시대 또한 과연 누가 진정한 선비이고, 누가 외침을 유도하는 진정한 도둑이고 매국노인가? 실학자 정약용의 ‘감사론監司論’을 읽어보자. (끝)

명나라의 패권주의와 조선의 사대(事大)

권현인비가 조선의 공식적인 공녀(貢女)로 뽑혀 명나라로 가야만 했던 역사적 사건을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자.

조선을 통치하는 왕도 멀쩡하게 살아 있고 똑똑한 대신들도 한 둘이 아니고 군대도 보유하고 있는데 황제를 모시는 환관의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전국의 처녀들을 결혼도 못하게 금훈령을 내려놓고 이쁜 처녀들만을 골라서 남의 나라 황제에게 바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소위 중국의 중원을 통일한 왕조가 구축한 조공체제가 국제 질서로 작동하는 시대였다. 조공체제는 조공(朝貢)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약한 나라는 지배강국이 규칙 제정자(rule maker)임을 인정하고 물건 등을 가져다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그 대신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국가는 그 시스템 유지의 책임을 지는 형식이었다.

비근한 예로 임진왜란은 명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시스템 내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조공시스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며, 이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책임이 명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조선에 출병했다고 볼 수 있다.

1409년 명나라 황제는 조선에서 공녀를 보낸 보답으로 왕과 왕비에게 특별한 예물을 보낸다. 환관 황엄은 하사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5월3일) “지난해 너희가 저 곳에 와서 바친 여자는 매양 살진 것은 살지고 마른 것은 마르고 작은 것은 작아서 매우 좋지 못하였다. 다만 너희 국왕의 공격하는 마음이 중한 것을 보아서..... 왕이 지금 만일 뽑아 둔 여자가 있거든 많으면 두 명 적으면 한 명을 다시 데리고 오도록 하라.”고 선포한다.

이에 태종은 진헌색(특별 임시기구)을 설치하고 전국에 금훈령을 내리고 처녀들을 뽑는다. 그러면서 태종은 지난해 뽑은 처녀들에게는 시집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황엄에게 말한다. 환

관 황엄은 허락한다.(5월25일) 처녀 뽑는 문제로 백성들이 놀라고 소동하지 아니한 집이 없다고 보고한 총청도 도관찰사 안노생은 영주에 가두어 버린다.(5월29일) 그러면서 태종은 “대국의 요구를 소국이 또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 황엄이 처녀 정씨를 간택하여 데리고 돌아가면서 “정씨가 미색이 아니니 마땅히 다시 구하여 기다리소서” 할 때도 “나라가 작고 힘이 약하여 지금 바치는 말이 겨우 1만 필이지만 미색이 야 어찌 다시 구하지 않겠소”라고 대답한다.(11월13일) 8년 후 1417년 4월에는 “처녀를 모름지기 널리 구하여 내가 위를 섬기는 뜻을 맞게 하라”고 신신당부한다. “사대의 예는 내 감히 게을리 할 수 없”(5월2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육선재라는 명나라 관리가 처녀를 가지고 와서 “전하의 지성은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외에도 명나라가 요구하는 것은 많았다. 전라도 김제에 살다 환관으로

뽑혀 갔던 한첩목아는 명나라 사신으로 와서 영락제의 요구사항을 전한다.

“나이가 젊으면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화자(火者: 고자, 환관) 육십 명을 뽑아서 데리고 갔다.(태종3년/11/17) 요리사, 여가수 등도 그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전쟁에 필요한 말(馬)에 대해서는 3천 필, 5천 필, 1만 필 등 수시로 요구했다. 명나라 황제들이 1391년(공양왕)부터 세종 16년(1434)까지 44년 동안 데려간 이 땅의 젊은 남녀는 모두 268명이 이른다.

이를 통해 명나라와 조선 간 외교의 근간이 되었던 사대와 조공의 추악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맹자는 힘으로 인(仁)한 척 하는 것을 폐도(禍道)라고 했다. 자국의 강한 경제력과 무력으로 약소국을 압박하고 불공하지 못하도록 사대와 조공(朝貢)을 요구한 것이 바로 폐도이자 패권주의이다. 강대국은 힘으로 존재하지만 약소국은 지혜가 있어야 생존한다. 과연 조선의 사대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 전략적 사대인가?

편집국장 권행완

어여(魚呂)의 난

명나라 황제 영락제는 몽골의 오이 라트(Oyat) 등 북방 세력을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거느리고 친정(親征)에 나섰다. 북방을 평정시킨 후 남경으로 귀국하는 도중 권현인비가 산동성 제남로에서 서거하였다.(1410년 10월 24일) 영락제는 눈물을 머금고 슬피 단식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영락제는 황후가 죽은 후에 권현인비에게 황후가 하는 궁중 일을 맡길 정도로 총애했다. 그런데 그 권현인비 마저 서거하니 어찌 비통하고 슬프지 않았으랴. 귀국하는 도중이라 나중에 노황후와 합장하기로 하고 우선 산동성 조장시에 가장 좋다고 하는 곳에 장례를 치렀다. 권현인비 서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몇 년 후(1414) 권현인비의 노비와 여민인(여진귀의 딸)의 노비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권현인비 노비가 너희 주인어른이 약을 먹여 우리 권현인비(妃子)를 죽였다고 말해 버렸다. 이때서야 영락제도 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다. 조선에서 공녀로 선발되어 함께 명나라에 갔던 여민인이 평소 권현인비에게 자손이 있는 황후가 죽었으나 네가 맡아 보는 것이 몇 개월이나 가겠느냐 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는 점. 또 명나라 내관과 고려 내관 등 4명이 친형제처럼 친했는데 그 중 한 명이 금 등을 세공하는 사람한테 비상을 사서 여민인에게 주었고, 여민인은 그 비상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

서 가루로 만들어 호도차에 타서 권현인비에게 주어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영락제는 여민인 궁중의 사내들, 내관 등 관리자 수백 명을 죽였고, 특히 여민인은 낙형(烙刑)에 처해졌다. 놀라운 낙형한지 1개월 만에 죽었다.

그런데 다시 수년이 지나 밝혀진 사실은 중국 상인의 딸 여씨(呂氏)가 궁중에 들어와(1414) 여민인과 동성(同姓)이라 하여 동성연애를 하려 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상인의 딸 여씨가 권현인비가 죽은 것은 여민인이 독약을 차(茶)에 타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무고한 사건이었다. 그 뒤 상인의 딸 여씨가 궁인 어씨(魚氏)와 함께 임금 시중드는 짚은 내시(宦者)와 간통을 하다 두 사람이 스스로 두려워 목을 때어 죽었다. 화가 난 황제가 여씨의 시중드는 계집종을 국문하니 시역(弑逆)을 도모했다고 자백하자 영락제가 친히 나서 연루된 자 2800여명을 모두 죽

여 버렸다. 어떤 이는 황제의 면전에서 욕하기를, “자기의 양기가 쇠하여 젊은 내시와 간통한 것인데, 누구를 허물하느냐.”고까지 하였다. 이 사건을 어여의 난이라고 부른다.

영락제는 늙어서도 권현인비가 만든 음식 등을 그려워했다. “짐은 늙었다. 입맛이 없으니 소어(蘇魚)와 붉은 새우젓과 문어 같은 것을 가져다 올리게 하라. 권비(權妃)가 살았을 적에는 진상하는 식품이 모두 마음에 들더니, 죽은 뒤로는 무릇 음식을 올리다간 그 술을 양조한다든가 옷을 세탁하는 등의 일이 모두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한 마디로 요즘 뽑힌 공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처녀를 빨리 뽑아서 보내라는 의미였다.

영락제가 죽자 조선에서 뽑아 들어간 한씨 등이 순장되었고, 궁인으로 순장된 자가 모두 30인이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 단상

비에 젖는 종친회신문을 바라보며

권형진(權炯辰, 족보명 權赫珉, 부정공파 36세)

할아버지가 계시는 호국원, 오늘은 5주기, 비가 양수같이 온다. 선산에 가시려다가 안동댐 중간의 그 외진 곳에 손자가 오기 힘들어 하늘 까봐 돌아가기 몇일 전 중대 결심, 자그만 단지 하나로 안장되신 할아버지. 오늘은 처음으로 내가 운전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간다. 고모들을 기다리다가 미리 아버지랑 참배했다. 그런데 내보고 아버지가 신문지를 먼저 드리란다.

<안동권씨종보> 얼마전부터 아버지가 종보에 대해 이런 저런 말씀을 했지만, 집에 굽어다녀도 관심이 없었다. 옛날 초당때 인가? 안동 시골

집에서 집배원이 던져 놓고 간 신문을 주워다가 할아버지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읽고 곱게 접어 상자에 넣으시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 때 ‘이게 다 역사다. 사람이 뿐이지.’라고 말해 버렸다. 사람의 뿐이지. 혁민아~ 너는 누가 물어보면 안동권씨 부정공파 화은공계 36세라 하고... 그리고 남기신 족보랑 그 많은 관련 서류, 친필 족자 등은 아직 생전 그대로 있는 하지만 그걸 서둘러 가져 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는 나에게 그것의 보존을 부탁 하지만, 나는 솔직히 그럴 생각이 없다. 요즘 디지털 세상에 누가 그걸 아파트에 가지고 있겠는가?



아버지는 이걸 어찌나 하면서 무슨 권씨자료원, 삼태사기념관 등이 생기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문화유산으로 해야 한다나 어쩐다나 그러시는 데, 다 부질없어 보이는 것이 솔직한 내 생각이다.

하지만 비에 젖어가는 권씨종보를 보면서 문득 할아버지가 더욱 보고자 진다. 시골에 가면 저 동구밖에서부터 기다리시다가 ‘아이구 이놈 왔나? 한 번 만져보자.’하면서 손을 내다리 밑으로 내미시면 나는 웃으며

‘싫어요.’ 하면서 도망가곤 했다. 그 때가 너무 그립다. 지금은 폐허 같은 그 넓은 시골집, 한달에 한번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고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이다.

하여간 다른 건 물라도 끓어버린 할아버지의 ‘회랑무공훈장’을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호국원 조형물을 향해 예비군도 다 끌난 나 이이지만 거수 경례를 해봤다. 비가 얼굴을 때리니 모든 것이 감춰줘 좋았다.

그러나 오는 길에 할아버지의 잔소리에 영 분위기가 썰гар해졌다. “아! 이 때는 브레기 살 짹 밟아. 차선변경. 끼어들어… 임마 깜박이… 따를 브레기… 베스트 드라이버(우수한 운전병)란? ‘차는 가듯이 서고 서듯이 가도록’ 알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군대 수송부 선임 하사로 운전 보다는 노상 선임 탑승만 하면서 잔소리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하신다.

안동권씨 종보 대금 납부 안내

종보 대금 3만원 납부는 100만 족친의 번영과 화합의 상징입니다.

♣ 2018년 9월부터 종보 대금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금계좌 : 농협 301-0235-6546-41(안동권씨 대종회)

♣ 문의전화 : 02-2695~2483-4

안동권씨 대종회